

첨삭답안	연세대학교 2014 공감	작성자	m3m3m 님
------	---------------	-----	---------

[문항 1]

제시문 (가), (나), (다)의 인물들과 시적 화자의 태도는 공감의 개념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공감의 부재를 나타내는 반면 제시문 (나)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한 공감의 태도를 보여준다.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을 공감하지만, 완전한 공감의 태도는 보여주지 않는다.

아이히만의 태도에서 공감은 찾아볼 수 없다. 증인은 아이히만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한 직업학교를 세우는 등의 선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나치의 명령에 따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쳐 학살한다. 또한 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서 그가 학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죽은 유대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는 곧 세계적인 대학살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나)의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인 포스터 속 비둘기의 감정과 상태를 모두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포스터에 갇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없는 비둘기의 처지가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라고 표현하며 안타까워한다.

(다)의 아킬레우스는 죽을 위기에 놓인 뤼카온의 처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결국 뤼카온을 죽인다. 만약 아킬레우스가 (가)의 아이히만처럼 뤼카온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바로 뤼카온을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뤼카온에 상황에 공감하고 전쟁터에서 항상 목숨을 위협받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뤼카온이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공감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뤼카온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시적 화자처럼 완전한 공감을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킬레우스는 (가)의 아이히만처럼 완전히 공감을 배제하지도, (나)의 화자처럼 타자와 완전히 동일화 되지도 않는 태도를 보여준다.

[첨삭 포인트]

1. 전반적으로 좋은 답안이고, 딱히 수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A0

[문항 2]

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간접적이고 일회적 성격의 인간관계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감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다.

2. 하지만 공감은 쉽게 얻을 수 없다. 바람직한 공감능력을 위해서 우선 개인은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이 발언에서 그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나 생각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주체성을 갖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여 나치의 명령을 거부하고 유대인 학살에 반대했을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 교수가 어머니를 살해한 강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주체성을 갖고 용서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또한 공감을 위해서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제시문 (다)의 마지막에 뤼카온이 두 팔을 벌리고 주저앉은 이유는 항상 목숨이 위협받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아킬레우스의 처지에 공감한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 교수도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 본성을 깨닫고 강도들의 상태에 공감하게 된다.

공감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공감이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의 워딩턴 교수가 강도들에게 공감했기에 그는 복수하고 싶다는 폭력적인 생각을 접을 수 있었다. 만약 제시문 (가)의 아이히만이 유대인들에게 공감했었다면 그는 그 끔찍한 학살을 주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첨삭 포인트]

- 1. 의미 없는 문장 서술입니다.
- 2.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주체성만 있으면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제시문 (다)의 아킬레우스는 주체성이 있지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 3.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아킬레우스는 결국 뤼카온을 죽였기에 이는 공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4. 지금 세 개념을 제시문에 도입하여, 공감과 폭력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형식과 사고의 방향성은 타당하나, 결론을 서술하는데 있어 타당하지 못한 점들이 존재하여, 아쉬운 답안입니다.

B-

총평	2번 답안이 참 어렵습니다. 2번 답안에 관해 자신의 결론과 그 결론을 보충하는 근거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	--------------------------------------------------------------------------------------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 述)